

目 次

東洋古典國譯叢書 刊行辭

이 책에 대하여

四書集註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凡 例

集註引用姓氏 略解

孟子集註

序 說	15
梁惠王章句 上	25
梁惠王章句 下	66
公孫丑章句 上	112
公孫丑章句 下	161
滕文公章句 上	198
滕文公章句 下	240
離婁章句 上	277
離婁章句 下	325
萬章章句 上	369
萬章章句 下	407
告子章句 上	444
告子章句 下	486
盡心章句 上	526
盡心章句 下	580

- 附錄 1. 孟子年譜
2. 戰國七雄圖

序 說

史記列傳曰 孟軻는 騶人也니 受業子思之門人하다 - 趙氏曰 孟子는 魯公族孟孫之後라 漢書註에 云 字子車라하고 一說에 字子輿라하니라 騶는 亦作鄒하니 本邾國也라 子思는 孔子之孫이니 名伋이라 索隱에 云 王劭以人爲衍字라하고 而趙氏註及孔叢子等書에 亦皆云 孟子親受業於子思라하니 未知是否라 -

《史記》〈孟子列傳〉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孟軻는 騶 땅 사람이니, 子思의 門人에게 受業하였다. - 趙氏가 말하였다. ‘孟子는 魯나라 公族인 孟孫氏의 후손이다.’ 《漢書》註에 이르기를 ‘字는 子車이다.’ 하였는데, 一說에는 ‘字가 子輿이다.’ 하였다. 騶字는 또한 鄒字로 되어 있으니, 본래 邾나라이다. 子思는 孔子의 손자로 이름이 伋이다. 《史記索隱》에 이르기를 ‘王劭가 人을 衍字라 했다.’ 하였으며, 趙氏(趙岐)의註와 《孔叢子》 등에 또한 모두 이르기를 ‘孟子가 子思에게 친히 受業했다.’ 하였으니, 옳은 지 알 수 없다. -

道既通에 游事齊宣王호되 宣王이 不能用하고 適梁호되 梁惠王이 不果所言하니 則見以爲迂遠而濶於事情¹⁾이라 - 趙氏曰 孟子通五經하고 尤長於詩書라 程子曰 孟子曰 可以仕則仕하고 可以止則止하고 可以久則久하고 可以速則速은 孔子니 聖之時者也라하시니 故로 知易者莫如孟子라 又曰 王者之迹이 熄而詩亡하고 詩亡然後에 春秋作이라하시고 又曰 春秋에 無義戰이라하시고 又曰 春秋는 天子之事라하시니 故로 知春秋者 莫如孟子니라 尹氏曰 以此而言이면 則趙氏謂孟子 長於詩書而已라하니 豈知孟子者哉리오 按史記컨대 梁惠王之三十五年乙酉에 孟子始至梁하고 其後二十三年當齊湣王之十年丁未에 齊人이 伐燕이어늘 而孟子在齊라 故로 古史謂 孟子先事齊宣王하고 後에 乃見梁惠王, 襄王, 齊湣王이라하니라 獨孟子以伐

軻:수레 가 騶:땅이름 추(鄒同) 游:놀 유, 갈 유 適:갈 적 果:결행할 과 迂:멀 우, 우회할 우 濶:넓을 활

燕爲宣王時事는 與史記, 荀子等書로 皆不合하고 而通鑑에 以伐燕之歲로 爲宣王十九年하니 則是孟子先游梁而後에 至齊見宣王矣라 然이나 考異亦無他據하니 又未知孰是也라 -

道を 이미 통달하자, 齊나라에 가서 宣王을 섬겼으나 宣王이 쓰지 못하였고, 梁나라에 갔으나 梁惠王도 말한 바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迂遠하여 事情(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여감을 받았다. - 趙氏(趙岐)가 말하였다. ‘孟子는 五經을 통하였고 특히 詩書에 뛰어났다.’ 程子가 말씀하였다. ‘孟子가 말씀하기를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고 오래 있을 만하면 오래 있고 속히 떠날 만하면 속히 떠나신 것은 孔子이니, 聖人의 時中인 자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周易》을 안 자는 孟子만한 분이 없다. 孟子가 또 말씀하기를 「王者의 자취가 종식됨에 《詩》가 망하였고 《詩》가 망한 뒤에 《春秋》가 지어졌다.」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春秋》에는 의로운 전쟁이 없다.」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春秋》는 天子의 일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春秋》를 안 자는 孟子만한 분이 없다.’ 尹氏가 말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면 趙氏가 孟子는 詩書에 뛰어날 뿐이라고 말하였으니, 어찌 孟子를 안 자이겠는가.’ 《史記》를 살펴보면 ‘梁나라 惠王 35년을유에 孟子가 처음 梁나라에 이르렀고, 그후 23년인 齊나라 湣王 10년 정미에 齊나라 사람들이 燕나라를 정벌하였는데, 孟子가 齊나라에 있었다.’ 하였다. 그러므로 古史에는 ‘孟子가 먼저 齊나라 宣王을 섬긴 뒤에 마침내 梁나라 惠王, 襄王과 齊나라 湣王을 만나보았다.’ 하였다. 다만 《孟子》에 燕나라를 정벌한 것을 宣王 때의 일이라 한 것은 《史記》와 《荀子》 등 여러 책과 부합하지 않으며, 《通鑑》에는 燕나라를 정벌한 해를 宣王 19년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 孟子가 먼저 梁나라에 갔고 뒤에 齊나라에 이르러 宣王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考異》에 또한 다른 근거가 없으니, 또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

譯註 1. 見以爲迂遠而濶於事情 : ‘당시 제후왕들이 孟子를 보고서 迂遠하여 事情과 멀다고 여겼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壺山 朴文鎬는 見을 받다, 입다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當是之時하여 秦用商鞅하고 楚魏用吳起하고 齊用孫子田忌하여 天下方務於合從(縱)連衡(橫)¹⁾하여 以攻伐爲賢이어늘 而孟軻乃

述唐虞三代之德하시니 是以로 所如者不合일새 退而與萬章之徒로 序詩書하고 述仲尼之意하여 作孟子七篇하시니라 - 趙氏曰 凡二百六十一章에 三萬四千六百八十五字라 韓子曰 孟軻之書는 非軻自著라 軻既沒에 其徒萬章公孫丑 相與記軻所言焉耳라 愚按 二說不同하니 史記近是라 -

이 때를 당하여 秦나라에서는 商鞅을 등용하고, 楚나라와 魏나라에서는 吳起를 등용하고, 齊나라에서는 孫子(孫臏)와 田忌를 등용해서 天下가 막 合縱과 連橫을 힘써 공격과 정벌을 홀륭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孟軻는 도리어 唐虞(堯舜)와 三代之 德을 말씀하였다. 이 때문에 가는 곳마다 뜻이 합하지 못하자, 물러나 萬章 등의 門徒들과 더불어 《詩經》과 《書經》을 서술하고, 仲尼의 뜻을 기술하여 《孟子》 7篇을 지으셨다.” - 趙氏가 말하였다. ‘모두 2백 61章에 3만 4천 6백 85字이다.’ 韓子(韓愈)가 말하였다. ‘孟軻의 책은 孟軻가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孟軻가 죽은 다음 그 門徒인 萬章과 公孫丑가, 孟軻가 일찍이 말씀한 것을 서로 기록한 것이다.’ 하였다. 내(朱子)가 살펴 보건대 두 가지 說이 같지 않은 바, 《史記》가 옳을 듯하다. -

譯註 1. 合從連衡 : 從은 縱과 같고 衡은 橫과 같은 바, 合從은 당시 中國의 楚·燕·齊·韓·魏·趙 등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6개국이 연합하여 서쪽에 있는 秦에 대항함을 이르며, 連衡은 이들 6개국이 秦을 섬김을 이른다.

韓子曰 堯는 以是傳之舜하시고 舜은 以是傳之禹하시고 禹는 以是傳之湯하시고 湯은 以是傳之文武周公하시고 文武周公은 傳之孔子하시고 孔子는 傳之孟軻하시니 軻之死에 不得其傳焉하니 荀與揚也는 擇焉而不精하고 語焉而不詳하니라 - 程子曰 韓子此語는 非是蹈襲前人也요 又非鑿空撰得出이니 必有所見이라 若無所見이면 不知言所傳者何事라 -

軻:고삐 양 忌:꺼릴 기 從:세로 종(縱同) 衡:가로 횡(橫同) 唐:나라 당 虞:나라 우
如:갈 여 尼:산이름 니

韓子(韓愈)가 말하였다. “堯임금은 이것을 舜임금에게 전하시고, 舜임금은 이것을 禹王에게 전하시고, 禹王은 이것을 湯王에게 전하시고, 湯王은 이것을 文王・武王과 周公에게 전하시고, 文王・武王과 周公은 이것을 孔子에게 전하시고, 孔子는 孟軻에게 전하셨습니다, 孟軻가 죽자 그 전함을 얻지 못하였다. 荀子(荀況)와 揚子(揚雄)는 선택은 하였으나 精하지 못하였고, 말은 하였으나 상세하지 못하였다.” - 程子가 말씀하였다. “韓子의 이 말씀은 예전 사람의 말을 踏襲한 것이 아니고 또 쓸데없이 억지로 빈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니, 반드시 본 바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본 바가 없다면 傳한 바라고 말한 것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 -